

데스크사각



윤영기
체육부장

스포츠와 선거의 공통점은 승자와 패자가 선명하게 갈린다는 것이다. 잠시 환호가 있을 뿐, 곧바로 대중의 기억에서 사라진다는 점도 닮은꼴이다. 뻘한 결과로 나타났을 때는 더욱 그러해서, 복기(復讐)할 필요조차 없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지난 15일 치러진 광주시체육회장 선거는 곱씹어 볼 대목이 적잖아 보인다.

광주시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표를 불과 5일 앞둔 지난 10일 김장준 후보에게 옐로카드를 제시했다. 김 후보가 '지난해 11월 광주의 한 체육협회 임원단과 식사를 하고 지지를 호소했다'는 사실을 들어 경고 처분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김 후보는 언론에 제공한 자료를 통해 "반론권이나 실태조사 없이 사전 선거 운동으로 경고 처분을 내린 뒤 후보자에게 통보도 없이 언론에 알린 것은 전형적인 특정 후보 편들기가 아닌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선관위에 편파적이라는 프레임은 씌운 것이다. 이외에

광주체육회장 선거는 끝났지만

도 그는 한술 더 떠 "불법 여론조사가 이뤄졌다. 관련자를 즉각 색출해 사퇴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선관위의 조치가 늦어지고 미흡하다면 관련자를 선거 부정 행위자로 고발하고 선거를 보이콧하겠다"고 연포를 놓기까지 했다.

오죽 억울했으면 이런 발언을 했을까 싶기도 하지만, 박정하게 보자면 이는 심판이 옐로카드를 내릴자 아예 판을 앞 گذا고 선언한 셈 아닌가. 선거가 애초 가장 선한 사람을 뽑는 제도는 아니어서 품격을 요구할 일은 아닐 터. 그런데 김 후보는 너무 많이 나갔다. 광역자치단체 체육회장을 맡겠다고 나선 예비 단체장의 언어로는 부적절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선거를 보이콧하겠다'는 김 후보의 '선언'에는 추격을 의식한 초조와 절박함이 깔려 있었다. 김 후보가 147표를 받았고 전갑수 후보가 137표를 얻었으니 불과 10표 차의 선거 결과가 이를 말해 준다. 기저에는 직업적 시각으로 보면 김 후보는 싸움에서 이기고 승부에서는 졌다. 전 후보 스스로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말한 것을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체급이 확연히 다른 선수들의 개인이었다. 배구선수 출신인 전갑수 후보는 광주 시배구협회장, 광주체육회 이사, 한국실

업배구연맹 부회장을 역임한 게 대표이력이었다. 김 후보는 1987년 전남배드민턴 협회장을 맡은 이래 30여 년 체육계에 몸담았다. 광주동아시아 경기대회 유치위원장, 광주U대회 집행위원, 배드민턴 국가대표팀 단장, 광주생활체육회장을 맡았고 체육계 원로 모임인 광주체육회 고문 단장까지 두루 중책을 맡았다.

그는 선거에서 본의 아니게 대한체육회의 지원 사격도 받았다. 체육회장 선거를 총괄하는 대한체육회는 공정 선거를 위해 출마자에게 사·도체육회 임원을 사퇴하도록 강제했지만, 대한체육회의 경우만은 현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덕분에 김 후보는 대한체육회 생활체육위원장 직을 보유한 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다.

그 한 예를 들자면, 지난해 12월 출마 예정자였던 김 후보는 '광주시 체육인의 밤' 행사에서 대한체육회 생활체육위원장으로서 대한체육회장 표창을 전달하는 수여자로 단상에 오를 수 있었다. 그리고 전 후보는 체육발전 공로로 광주시장 감사패를 받는 인사로 호명됐다. 체육계 인사 900여 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상을 주는 자와 받는 이의 무게감은 천지 차이였을 것이다. 김 후보가 수여자로 단상에 오를 수 있었던 건 광주시체육회의 '사려 없는' 배려 때문이었다. 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에 질의한 결과 '대한체육

회 회장을 보유한 출마 예정자가 상을 쥐는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누구를 위한 배려였나

어찌 됐든 허술한 선거제도는 앞으로 보완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당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치열했던 선거만큼 후유증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선거 과정에서 김 신임 회장과 전 후보는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양분해 '진영 싸움'을 했기 때문이다. 2016년 정부가 밀어붙여 전문·생활체육을 아우르는 현재의 통합체육회가 출범했지만, 양 단체는 아직도 내적 갈등 상태에 놓여 있다.

"우리는 배고파서 먹고 살기 위해 운동하고, 생활체육인은 부른 배를 꺼뜨리기 위해 운동한다." 이는 한 전문 체육인의 푸념인데, 생활·전문체육 간 뿌리 깊은 간극과 그 깊이를 말해 준다. 표결로 드러났듯 양측이 나눠 가진 표는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표심이 반영된 갈등 지수다. 여기에는 상대편이 당선하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우려가 공통적으로 농축돼 있다. 애초 두 후보가 진영 싸움에 불을 지피고 풀무질한 공동정범이지만, 선거는 이미 끝났다. 이제 수습 책임은 오롯이 승자인 김 회장 몫이다. 부디 김 회장이 성공한 체육회장으로 남길 바란다.

은펜칼럼



고성혁
시인

아픈 사람에게 더 이상 해볼 방법이 없는 것, 늙은 사람에게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것.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다. 이런 일에 어떻게 '정원의 한 모퉁이에서 발견된 작은 새의 시체 위 초가을의 따사로운 햇빛'(안톤 슈나-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을 말할 수 있단 말인가.

5년 전 마을에 들어와 영감님을 처음 뵈었다. 인사차 동네분들께 이름이 적힌 수건을 한 장씩 드렸는데 영감님은 그 후 나를 보실 때마다 '고씨!'라고 부르셨다. 고씨! 그 호칭이 익숙해질 무렵 내 집 앞까지 산책하신 영감님은 팔벌을 치라고 말씀하셨다. 영감님은 전국을 누비며 양봉을 하신 분이였다. "산자락 밑이니 벌을 치란 말이야. 팔 짝이 얼마나 좋은데 벌벌거리고 있느냐 말야." 그분의 나

깊은 슬픔

이 86세이실 때 일이다. 그건 내가 엄두를 낼 수 없는 일이었다. 내가 고개를 가웃하지 영감님은 "젊은 친구가 기백이 없어"라며 쫓듯 혀를 차시곤 지팡이를 짚은 채 기우뚱, 돌아서셨다.

영감님은 노환으로 몸이 불편함에도 늘 마을을 돌며 동네분들에게 농담을 건네셨는데 그 맥 할머니는 그런 영감님이 말할수라도 할까봐 귀를 세우고 노심조사하셨다. 물가에 놓인 어린아이처럼 굽입없이 눈으로 영감님을 쫓는 할머니의 모습은 아름다운 수채화 같았다. 그런데 만가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며칠간의 여행 후 동네를 들어서는데 길가에 영감님이 서 계셨다. 지팡이에 기댄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왜 그러고 계시냐고 여쭈더니 "망구가 병원에 입원했어..."라고 중얼거리셨다. 말끝에 울음이 묻어났다. "곧 나으시겠지요." 손을 잡고 있다 피치못해 돌아서는데 구부리고 주저앉으셨다. 눈에 밝히던 그 광경을 도무지 잊을 수가 없다.

며칠이 지난 뒤 마을길을 내려가다 완연하게 수척해진 영감님을 다시 뵈었다. 담벼락에 기대 먼 하늘을 보고 계셨다. 도드라지게 는 주름살과 움푹 들어간 눈.

나를 보시더니 거친 숨소리로 말씀하셨다. "망구가 아주 가부렀어..." 머릿속이 아예졌다. 가슴이 너무 아파 영감님의 쪼그라진 손을 잡았다. 영감님은 결국 황소가 우는 것처럼 통곡하셨고 나도 노인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다. 변비 때문에 수술했고 그 수술이 잘못 돼 돌아가시다니. 너무나 황당한 일이었다.

얼마나 당혹스러우셨을까. 삶과 죽음의 경계. 언제고 그 경계를 허물며 우리를 넘보는 저승사자와 이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우리의 운명. 뼈를 때리는 삶의 한계를 절감했다. 해거름 두 노인네의 두런거려던 말소리가 고살을 타고 오르는 낙엽처럼 떠올랐다. 이제 서로의 손을 의지하며 견뎌 모습은 재현할 수 없는 과거가 되고 말았다. 두 노인이 함께 살아온 오랜 세월을 가늠하니 너무나 가혹한 일이었다. 어찌해야 할까. 빨간 눈으로 숨을 멎고 우시는 영감님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어떻게 그 자리를 떠났는지 모르겠다.

이장님을 뵈고 영감님의 요 며칠 근황을 물었다. 장례를 마친 자제들은 떠나고 머느님이 택에서 며칠째 영감님을 구원하면서 마지막 살림 정리를 하고 계신 듯

하다고 말했다. 다음 날 일부러 찾아 뵈었다. 담벼락 옆에 쪼그리고 앉아 계셨다.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다. "고씨, 화분이라도 하나 갖고 가." 다시간절한 슬픔이 물러왔다. 우리 두 사람은 길가에 앉아 또 울었다. 영감님이 흐느끼다가 작게 속삭이셨다. 망구쟁이... 아늑의 할망구... 나를 두고 가다니... 이 그리움을 어찌 할까. 그 말씀을 억누르고 있는데 영감님이 불쑥 말씀하셨다. "나 모레 요양병원으로 들어가."

어떤 위로도 사치였다. 어떤 말도 영감님의 가슴을 누그러뜨릴 수 없었다. 요양병원이라니. 영영 마을로 돌아오지 못할 영감님. 우리는 이제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생활했던 방식대로 살다가 갈 수는 없게 된 것인가. 피치 못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런 깨달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다. 며칠 지나 병원에 계신 영감님을 찾아 뵈었다. 나를 보자마자 흐릿하게 눈가를 적셨다. 괴괴한 냄새가 나는 병실과 그안에 그림자처럼 앉아 계시는 노인네들의 모습. 사는 일이라는 게 너무 하찮고, 세상이라는 것도 바람에 날리는 휴지 조각 같았다. 아, 영감님. 명절은 잘 보내셨을까. 안타깝다. 참으로 외로운 세상이다.

기고

하루를 일생으로 살자

그것은 또 다른 은혜일 뿐이다. 나는 하루를 일생으로 사는 삶을 점으로 사는 일생이라고 한다. 점이 연결되어 선이 되듯, 하루하루의 점이 연결되어 생을 이룬다.

그 많은 시간 가운데서 한 점을 택하여 그 점을 묵은 해라 하고 그 후를 새해라 한다. 그래서 일 년에 한번씩 송구영신의 뜻깊은 순간을 사람들로 하여금 갖게 한 것은 분명히 인류의 귀중한 정신적 유산 중 유산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나는 동창의 커피를 찾히고 밝아 오는 2020년의 새 아침을 맞으며 성경 한 구절의 교훈을 마음에 새긴다.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창 13:14-15)

이 말씀의 배경은 아벨(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격려하시고 비전을 보여주신 말씀으로 "동서남북을 보라"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네 자손을 잃어도 상관없다. 내일이 또 주어지면

치는 축복을 주셨던 것이다. 어느 한 쪽만 바라볼 때에는 그곳이 목축지로서는 적합하지 않게 보였다. 그러나 동서남북으로 넓게 바라볼 때에는 더 좋은 목축지를 찾아 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다시 말하면 구하고 찾아보라는 것이다. 아벨이 지키는 대로 했다. 그러므로 약속한 땅은 후손의 영원한 복지가 됐고 자손은 모래와 같이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됐다.

실로 사람은 조상다운 믿음, 선구자다운 비전, 개척자다운 희생, 어른다운 양보, 선배다운 아량, 귀중한 본을 남겨야 한다. 그래야 아름답고 위대한 존재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참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무가치한 것을 버릴 수 있다. 큰 것을 위해 적은 것을 양보할 수 있고 정신적인 것을 위해 물질적인 것을 희생할 수 있으며 영원한 것을 위해 시간적인 것을 떠날 수 있다.

통팔로는 '인생 찬가'라는 시에서 "말 못하는 짐승이 되지 말고 싸움에 이기는

社說

총선 공천 주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 선정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7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각 정당이 후보 선정에 위한 실무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총선의 예선전이자 1차 관문인 공천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략공천 검토 대상 지역 15곳을 뺀 238곳의 지역구에 대한 후보 공모를 어제 마감하고 내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서류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어 다음달 7일-10일 후보자 면담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 원혜영 공천관리위원장은 어제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22명에게 개별 통보했다고 한다. '하위 20%' 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들은 경선에서 20% 감산이라는 불이익을 본다.

이런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가 다음달 2일부터 7일까지 실시될 것으로 알려져 각 후보 진영에는 비상이 걸렸다. 여론조사 결과는 후보자 압축을 위한 컷오프 심사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5·18 행불자 유해' 시간 걸려도 끝내 찾아내야

5·18 당시에 사라진 사람들을 찾기 위한 작업이 다시 시작했다.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자 묘지에서 신원 미상의 유골이 발견된 것을 계기로 추가 유해 발굴조사가 시작된 것이다.

5·18기념재단은 어제 광주 북구 문흥동 옛 광주교도소 교도대 북쪽 무연고자 묘지 인근에서 개토제를 열고 본격적인 발굴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과정에서 암매장과 관련된 정황이 발견되면 5·18재단은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에 알려 후속 조처를 하기로 했다. 발굴 조사는 내달 1일까지 진행된다.

이와관련 송선태 5·18진상규명조사위원장은 "5·18 이후 옛 광주교도소로 재편된 투입군이 사체를 처리했다는 증언이 있다"며 "28구가 암매장됐다는 보고가 있지만 지금까지 11구만 발견됐을 뿐 나머지 17구는 40년간 의문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가 관리하고 있던 옛 광주교도소 전역이 추가 발굴 대

자유한국당도 내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총선 후보를 공모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대안신당·무소속 현역 의원들은 최근 호남 의원을 중심으로 한 '제3지대 창당'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지지 기반 다지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의당 등 진보 정당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보고 대부분 지역구에 후보를 내며 밀바다 민심 잡기에 힘을 쏟고 있다.

여야 정당의 공천 과정에서는 예비 후보의 정체성과 기여도, 의정 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 등이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역대 총선 공천에서는 상식에 반하는 후보 선정 등으로 인해 잡음과 후유증이 적지 않았다. 이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 공천이 필요하다. 후보 자질에 대한 엄격한 검증 기준을 제시해 전과자나 철새 정치인은 가급적 배제하고 전략공천은 최소화하는 등 공정한 경선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상이 되어 한다"며 "오는 2월 말께부터 다른 추가 발굴 조사는 진상조사위가 주관해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무연고자 묘지에서 발견된 유골이 당초 알려진 80여 구보다 훨씬 더 많은 250여 구 이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해당 유골을 하나의 객체(한 사람)로 분류하는 작업을 70% 정도 마친 결과를 통해 이처럼 분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도소 이전 과정에서 옮겨진 무연고자 유골에 5·18 행방불명자의 유골이 섞여 있을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면밀하게 조사하고 확인해 유해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고 암매장 사체를 처리했다는 증언이 있다"며 "28구가 암매장됐다는 보고가 있지만 지금까지 11구만 발견됐을 뿐 나머지 17구는 40년간 의문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가 관리하고 있던 옛 광주교도소 전역이 추가 발굴 대

無等鼓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에 접어들었다.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정치권에서도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관련 정책을 쏟아 내고 있다.

정부는 최근 '동물복지 종합 계획'을 발표하면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매기겠다고 밝혔다. 찬반 논란에 휩싸였다.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한 해 12만 마리가 넘을 정도로 급증하자 보유세를 부과해 이 돈을 동물보호센터 운영비 등 동물복지에 사용하겠다는 취지였다. 독

반려동물의 위상

에 따르면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구별해 놓고 있고 제3 보험은 생보사나 손보사 모두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반려동물을 재물로 규정해 손보사에서만 펫보험을 판매하고 있지만 법을 개정해 사람으로 규정하면 생보사도 판매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생보사는 반기고 손보사는 반대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결국 바그르트 싸움 때문이다. 높아진 반려동물의 위상 때문이었지만 표심을 얻거나 시장을 확대하려는 인간의 욕심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장필수 전남본부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1(윤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